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3주일
제37권 3호(가해) 2016년 12월 11일

[묵상]



<대림 제3주일>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생각, 생활의 범위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이롭게 복음을 해석하려 든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상도 역시

우리의 바램만을 채워주시는 메시아는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참된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가?

행복, 경제적 안정, 사회적 특권, 출세 등을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서는 비천하고 나약한 메시아 보다

우리의 바램만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더 기다리지는 않는가?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드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 326-4350 Ext.106

(310) 326-4350 Ext.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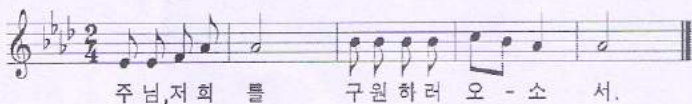
(213) 637-900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서성용 베드로
	(생)김행선 올리아나, 이복임 엘리사벳
주일 학생	(연)
	(생)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이현주 엘리사벳
주일 낮 미사	(연)이정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낙태아들, 민정완 스테파노, 전정규 루시아, 노영옥 & 노로사, 이연호 요한, 변세영 안드레아 & 변혜정 올리아나, 반치우 안셀모 + 반순예 안나, 김복님 마리아 & 김차옥 요셉, 연옥영혼, 오원순 안나, 양노엘 사제
	(생)새 영세자들, 박정미 클라라, 황윤재 베드로가정, 손석 스테파노, 김병무 후고,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 하버/카슨 반원가정, 정승원 켈리 & 히구찌 트레이시 가정, 정승민 그레이스 & 김서량 토마스가정, 문지윤 & 문준석, 정희교 엘리사벳, 성실하신 동정녀 Pr. 단원들, 백일섭, 김봉세 스테파노 & 김인아 루치아,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35,1-6.10

화답송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5,7-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 음 마태오(Matthew) 3,1-12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2. 한국 교회의 성장(1953-1962년)

2-2. 교회와 정치 권력

이렇듯 교회는 민주당 정권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권력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동안 교회의 견해를 한국 역사 현장에 적용하여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5·16 쿠데타 직후 교회는 합법적 정권에 대한 지지와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포기하였다. 오히려 교회는 장면 내각을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 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쿠데타 세력은 자신의 정권 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한 교황 사절은 쿠데타 세력이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호감을 표현하고, 미국에 앞서서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였다. 이는 쿠데타 세력에게서 한국 교회가 배격되거나 탄압받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하였다.

3. 한국 교회의 쇄신(1962-1984년)

3-1. 교계 제도 설정과 교회 쇄신

바야흐로 세계 교회는 교황 요한 23세가 선출된(1958년) 뒤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다. 1962년 이후 세계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아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한국 교회는 1984년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기에 이른다. 1962년 한국 교회는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된다. 교계 제도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성사 집전과 관련되는 신품권(ordō)을 통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내의 입법·사법·행정 업무와 관련되는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n)의 행사와 관련된 제도이다. 교황청에서는 선교지의 경우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치권의 일부를 제한해 왔다. 선교지의 교회는 재치권 행사에 대하여 교황청 포교성성에 직속되어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교황청은 선교지 교회가 자립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정식 교계 제도를 설정해서 완전한 재치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정식 교계 제도 설정은 교회 제도적 측면에서 일대 발전을 뜻하는 사건이다.

<계속>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30	130	130
봉헌	259	259	257
성체	289	289	300
파견	128	128	176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야고5,8)

대림초에 불이 세 개 켜졌습니다.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하나씩 켜져 가는 대림초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구세주의 성탄이 임박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둠을 벗고 빛이신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 3주일의 전례 말씀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메시아 시대의 기쁨을 앞당겨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이사 35.1-6 참조)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 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묻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 당신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4-5)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다가 권력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분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암울하고 야만적이었던 70~80년대 유신 정권과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중심으로 부당한 정치권력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착취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들을 껴안으며 오늘의 500만 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 향락주의라는 세속화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림 3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하여 물질적 나눔을 실천하자는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물질적 가난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모두가 함께 가난을 나눌 때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물질적 가난은 영적 가난이 해결될 때, 사랑으로 나누는 정신이 회복될 때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 홍인식 마티아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허물을 닦하다

정오엔 그림자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게 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서로의 그림자를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놀았으면서도
때로는 헤어진 후
서로를 닦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닦하는 사람들은
함께 그림자를 밝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유지아 클라라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전례에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다리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따라서 성경 말씀도 ‘깨어 기다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성탄 /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24일(토) 밤 9시(토요저녁미사 없음)
 ◆ 성탄 대축일 낮미사 : 25일(주일) 오전9시30분, 11시
 ◆ 송년감사 미사 : 31일(토) 밤11시(토요저녁미사 없음)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7년 1월1일(주일)오전9시30분, 11시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세례식과 축하식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 (11일) 세례식에서 12명의
새 영세자가 탄생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 영세자 :

박승주 카타리나, 박윤식 시몬, 박준범 요한,
박지예 클레어, 윤현정 토마스, 이대영 벨리나,
이명희 아네스, 이상구 시몬, 이주창 아펠레,
점섬순 스테파니, 정은영 다니엘라, 정임선 크리스티나

축하식 : 강당에서 미사 후 축하 예식이 있습니다.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20일(화)

- 고해성사 : 오후 7시 (참회예절 부터 시작)
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대림 시기 중(대림 첫 주부터 매일)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성탄맞이 대청소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들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전 교우 대청소: 12월 18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 점심 후
- 청소 담당구역: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문의: 김준 방저거 소공동체 부장 ☎(310)625-3312

◆요셉회 12월모임 변경 안내

- 일시 : 12월 11일(주일), 11시 미사 후 친교장 셋째 주(18일)는 본당 대청소인관계로 임시로 모임을 변경합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2016년 교부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소득세보고)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6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친교자리 (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 11일: * 토서2반 : 우거지 갈비국(\$3)
* 주일학교 : 피자 (자모회)
- 12월 18일: * 토남3반: 짜장밥(전신자 무료배식)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구자운	김관기	김기정	김병주	김선제	김양금		성전헌금	강태홍	구자운	김관기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원모	김윤진	김제영	김종렬	김찬구	김현숙	김형순			김윤진	김찬구	김현숙	남인구	민경근	박완철	박인식											
	남인구	민경근	민성원	박미경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박정희	방정복	변복순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양영자											
	박혜정	방정복	변복순	손영희	송영미	송재훈	신순철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숙화	이영희	이은록											
	안민수	안태갑	양영자	오강님	오영섭	윤희동	이근모			이인석	이형삼	이효세	임 순	임한나	정경자	정규숙											
	이민상	이상석	이숙화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이종선			정동호	조준계	주용순	최기남	최길주	최재은	한장환											
	이형삼	이효세	임 순	임한나	전정일	정경자	정규숙			홍광선	황인중	한길선례															
	정동호	조준계	주용순	최기남	최길주	최재은	최희태																				
	한 영	한장환	홍광선	홍인표	황인중	한길선례																					
	합계:\$ 6,670							합계 : \$2,960																			
주일미사헌금 :\$2,476							2차헌금(은퇴자기금) : \$804							감사헌금 :\$50(김옥찬 수산나)							성물판매 이익금 : \$765.50						

◆백삼위 배론 청년회 송년 '배론의 밤'안내

저녁식사 및 교리상식 퀴즈(문제별 상품)

- 일시 : 12월17일(토)특전 미사후 강당
- 대상 : 배론 청년회원, 청년회에 관심 있는 본당신자들
- 연락처 : 유보나 보나 ☎(310)755-9837

◆ 주일학교 전진 2 반 피정

- 일시 : 12월 16일~18일
- 참가인원 : 10명(전진학생 7명, 교사 3명)
- 장소 : Lake Arrowhead

◆2016년 SAT II 한국어 시험

- 만점자 : 김민진, 이윤표
 - 차점자 : 장운서, 박세진, 권태중, 이인수, 임수연
- 이외의 수고한 학생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 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ecks@gmail.com

▶가주 소식

◆ 아그네스성당 이나시오 카페커피선물세트

모든 선물세트는 예쁜 선물박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 \$10.00 케냐 6oz/bag
- \$20.00 케냐 6oz + 콜롬비아 6oz/bag
- \$50.00 하와이안 100%코냐8.5oz/bag+ 케냐 6oz + 콜롬비아 6oz/bag
- 주문방법 : E-mail : ignhanddrip@gmail.com
전화 (323)731-4433

◆ 이나시오성인 영신수련4박5일 침묵 피정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지도 : 이재욱 신부(예수회)
- 일시 : 1/18/2017(수)~1/22/2017(주일)
- 마감 : 1월18일 2017년
- 장소 : Pri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s Rd. Oceanside, CA 92058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정요세피나(213)598-6344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 원서 교부처 : 바오로의 딸 서원, 성 바오로 서원
<http://uus.pauline.co.kr> 인터넷 다운로드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엄영희 베로니카 12/7(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패트리치오 12/10(토) 오후6시 성당장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2/17(토)오후6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근식 미카엘 12/17(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심재은 클레멘스 12/10(토) 오후3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송년모임 12/10(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송년 모임 12/16(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12/13(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김희연 루시아 12/10(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오세원 아타나시오 12/18(일) 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이병우 마리노 12/10(토) 오후7시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틱다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12/16(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12/9(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이영석 크리스토퍼 12/9(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2/13(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체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주님의 선택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관구장님의 목소리인데.... “수녀님, 몽골에 가야겠습니다.” 저는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순간적으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답니다” 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미지의 나라 몽골. 아주 추운 나라.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공산주의 나라에서 막 독립된 나라. 그곳에 제가 필요하하다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002년 2월28일. 몽골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주교님과 그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몽골 분원 수녀들도 함께 나와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수녀들은 다음날,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그 엄동설한에 김밥과 라면,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준비하여 국립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몹시 추웠지만 새하얗게 눈으로 덮인 설경과 깨끗한 자연은 저를 즉시 매료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곳 수녀들은 1996년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바양호쇼, 존모드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과 어린이 집을 열고, 방과 전후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고, 가난한 이들도 돕고 있었습니다. 그 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주님의 성탄일을 공휴일로 지내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계속하였고, 저는 아이들에게 줄 식빵을 사러 가게로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몽골의 지형을 모르는 저는 경사진 골목길에 눈이 쌓이고, 쌓인 눈이 얼고, 또 얼음에 덮인 눈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낙상하여 오른손 팔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듯이,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한국인 정형외과 박사님이 계신 몽골 친선 연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로 오셔서 무사히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내 고국에서처럼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언어와 기후, 풍속과 사고방식, 인간관계 등을 습득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과 도우심에 굳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몽골에서 창설자들의 카리스마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방문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22)이 되도록,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는 선교의 삶은, 나날이 그 고귀함을 더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도 주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로서, 주님의 손안에 든 진흙처럼 살아가고 있음이 저에겐 큰 보람입니다.

◆박 마리미셀 수녀/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대구관구/몽골선교)

[교리상식]

복사'는 언제부터 생겼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 “복종하며(服) 섬김(事)’이란 뜻을 지닌 복사(服事)는 사제가 전례를 거행할 때에 곁에서 돕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복사는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 담당하였으나, 시종직과 같은 낮은 성직품(소품)은 1973년 전례 개혁 이후에 폐지되고 평신도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2년에 공적으로 여성들도 복사 직무를 할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복사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도둑맞은 다이아몬드

스페인의 아라곤 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날,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보석상을 찾아갔다. 그가 주인과 값을 흥정하고 있는 동안, 신하들은 보석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섰을 때, 보석상이 당황한 얼굴로 뒤쫓아 나왔다.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왕은 신하들 모두에게 보석가게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왕은 보석상에게 소금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각자 소금 항아리에 주먹을 넣었다가 꺼내도록 했다. 그렇게 한 후에 항아리의 소금을 탁자위에 쏟아냈더니 과연 소금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왕은 관대한 사람이었으므로 다이아몬드를 훔친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배려해 주셨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항상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피에르 르페브르 저, 당신을 바꿀 100가지 이야기, 바오로딸]

예수님의 곁에 있던 여인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관습을 넘어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존재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여성을 한 인격체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활동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8,1-3

예수님은 여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고 더욱이 일부다처제 및 이혼 금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인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활동 기간 중에 여성들을 관습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말씀하시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10,6-12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의 일을 도와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부활을 체험했던 첫 인물도 여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배반했어도 여성들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수난을 당하시는 동안 십자가 곁에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충직한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9,17-27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세 번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드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자는 주로 성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외부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었으며 철저히 아버지나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성들을 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신앙적인 숙제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루카 8,3)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에 모셨다. (요한 19,27)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근심·걱정·고뇌를 만들어 내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고양시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 오상의 성 비오 신부 -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채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MERCEDES - BENZ & BMW 전문 정비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지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Prudential
푸르덴셜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